

이 광 우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kwlee@kiep.go.kr]

주요 이슈

- 1월 대선이후, 연립정부 구성당간 갈등 고조
- 핀란드의 지식경제강국 발전 원동력: 교육, R&D
- 주변국 진출을 위한 핀란드의 거점역할 강화 필요

차 례

I. 일반개황	3
II. 주요 경제지표	5
1. 최근 경제동향	5
2. 향후 경제전망	5
3. 대외 경제관계	6
가. 연도별 수출입 추이	6
나. 품목별 수출입 현황	6
다. 주요 수출입 대상국 현황	7
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입·출 동향	7
III. 정치·경제동향	8
1. 정치동향	8
2. 경제동향	9
가. 경제성장	9
나. 물가상승	11
다. 환율	11
라. 대외교역	11
마. 산업	12
3. 경제발전 특징: 지식경제강국 핀란드	13
가. 세계일류 정보통신기술국	13
나. 핵심 산업 성공전환의 원동력: 교육, R&D	14
IV. 한국과의 경제관계	16
1. 교역관계	16
2. 투자관계	20
3. 전망	23
가. 주변국 진출을 위한 핀란드의 전략적 거점역할 강화 필요	23
나. 핀란드와의 다각적인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25

I. 일반개황

□ 지 리

- 국토면적: 338,145 km²
- 국 경: 2,681 km(노르웨이 727 km, 스웨덴 614 km, 러시아 1,340 km, 해안 1,250 km)
- 인 구: 5,231,372 명
(0-14세 17.1%, 15세-64세 66.7%, 65세 이상 16.2%; 2006년 6월 기준)
- 주요도시: 헬싱키(수도), 탐페레, 투르쿠, 라흐티, 오울루 등
- 기 후: 북극권 온대성(여름 13~17℃, 겨울 -3~-4℃)
- 지하자원: 목재, 철광석, 구리, 납, 아연 등

□ 행 정

- 공식국명: 핀란드공화국(Republic of Finland)
- 행정조직: 20개 지역, 432개 시
- 독 립: 1917년 12월 6일(구소련으로부터 독립)
- 헌법제정: 1999년 6월 11일(1919년에 제정된 舊헌법을 수정하여 적용)

□ 정 치

- 정부형태: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의원내각제)
- 대 통 령: 타르야 할로넨(Tarja Halonen, 2006년 1월 29일 취임)
- 총 리: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 2003년 6월 24일 취임)
- 의 회: 단원제 의회(Eduskunta, 200석 4년 임기)
- 총 선: 2003년 3월 16일(차기 2007년 3월)
- 주요정당: 중도당(KESK, 55석), 사회민주당(SDP, 53석), 국민연합(KOK, 40석) 등

□ 사회 · 문화

- 민 족: 핀란드인(93.4%), 스웨덴인(5.7%), 러시아인(0.4%), 에스토니아인(0.2%), 로마족(0.2%), 사미족(0.1%)
- 언 어: 핀란드어(91.6%, 공식 언어), 스웨덴어(5.5%, 공식 언어), 러시아어(0.5%)
- 종 교: 루터복음교(83.1%), 그리스정교(1.1%)
- 식 자 율: 100%
- 공식화폐: 유로화(EUR)

□ 한 · 핀란드 관계

- 對한반도 정책: 1973년 남·북한과 수교를 맺는 등 중립외교정책을 취해왔으나 냉전이후 한국과의 실질협력 관계를 증시함
- 수 교: 1973년 8월 24일(가입국: 에스토니아)
- 동 포 수: 170명(태권도 사범, 국제결혼 여성, 유학생 등)
- 통상관계: 교역량 26억 7,100만 달러(수출 20억 1,200만 달러, 수입 6억 5,900만 달러)
- 협정체결
 - 사증면제 각서교환(1974. 3.)
 -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품권 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1979. 9.)
 -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 협정(1980. 2.)
 -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1981.12.)
 -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1989. 7.)
 - 문화협정(1994. 1.)
 - 사증면제협정 개정 각서 교환(1994. 2.)
 -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1996. 5.)
 - 항공업무 협정(1997. 2.)
 - 정보통신협력 약정(2002. 4.)
 - 원전폐기물 처리기술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006. 9.)
- 친한단체
 - 핀·한 의원친선협회: 1993년 5월 창립(회장: Kari Uotila 의원)
 - 핀·한 친선협회: 1983년 7월 창립(회장: Mr. Matti Hanni)
 - 핀·한 무역협회: 1986년 4월 창립(회장: Mr. Jukka Seppala)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구 분	단 위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십억 달러	124.2	135.2	165.8	188.3	198.1
실질 1인당 GDP	달러	25,084	25,453	25,864	26,731	27,569
실질 GDP 성장률	%	1.0	2.2	2.4	3.6	2.1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1.6	0.9	0.2	0.9
실업률	%	9.1	9.0	9.0	8.8	8.4
공업생산증가율	%	-0.2	2.2	1.2	4.9	-2.3
수출	십억 달러	43.0	44.9	52.7	61.2	65.6
수입	십억 달러	30.3	32.0	39.8	48.4	55.6
경상수지	십억 달러	12.7	12.9	12.9	12.8	10.0
환율	EUR/US\$	1.12	1.06	0.88	0.80	0.80

자료: Statistics Finland.
Global Insight. Sep 2006.

2. 향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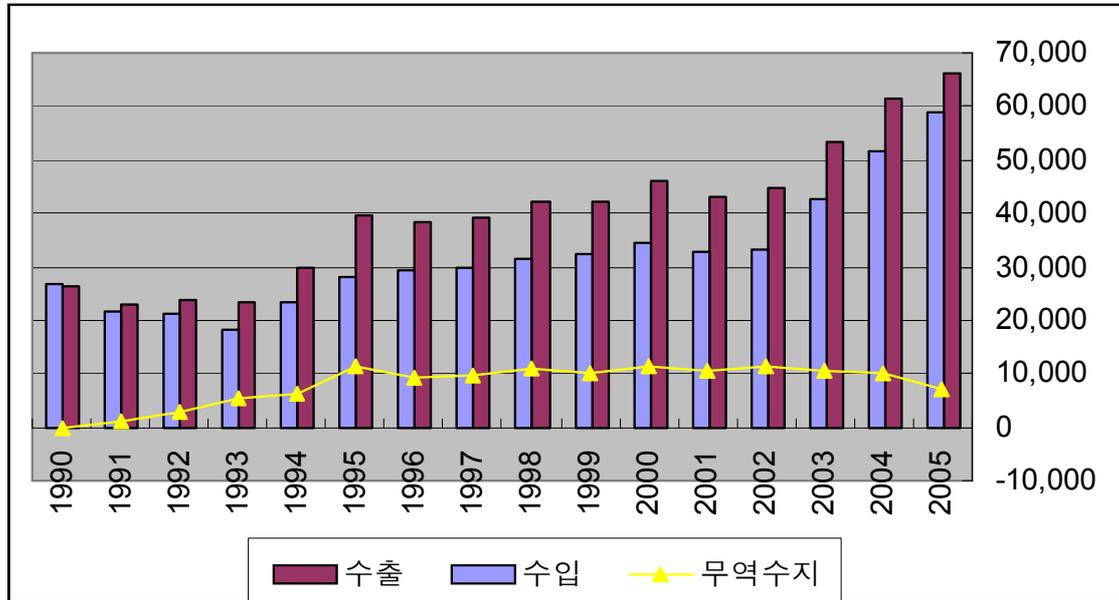
구 분	단 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십억 달러	213.9	246.8	271.5	270.1	273.4
실질 1인당 GDP	달러	28,544	29,294	29,986	30,726	31,395
실질 GDP 성장률	%	3.8	2.6	2.5	2.5	2.3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1.8	1.9	1.9	2.0
실업률	%	8.0	7.6	7.5	7.1	6.9
공업생산증가율	%	5.8	3.0	2.9	2.4	2.1
수출	십억 달러	74.7	87.6	97.1	97.5	99.3
수입	십억 달러	64.8	75.6	84.1	84.7	86.6
경상수지	십억 달러	9.9	12.0	13.0	12.8	12.7
환율	EUR/US\$	0.78	0.71	0.68	0.71	0.74

자료: Statistics Finland.
Global Insight. Sep 2006.

3. 대외 경제관계

가.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나. 품목별 수출입 구성

품 목	수 출			수 입		
	금액 (백만 유로)	비중(%)	증가율(%)	금액 (백만 유로)	비중(%)	증가율(%)
식료품, 가축	836	1.6	2	1,931	4.1	7
주류, 담배	94	0.2	7	413	0.9	11
천연자원	2,998	5.7	-5	3,690	7.8	9
에너지 자원	2,287	4.4	10	6,446	13.7	30
식용유	57	0.1	-0	46	0.1	-6
화학제품	3,999	7.6	8	5,332	11.3	11
기본제조품	15,737	30.0	-3	5,527	11.8	7
기계, 운송장비	23,106	44.1	19	18,415	39.2	21
기타제조품	2,918	5.6	6	4,389	9.3	9
기타	416	0.8	-9	831	1.8	-13

자료: Finland National Board of Customs.

다. 주요 수출입 대상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2004	2005		국가	2004	2005
1	러시아	5,458	7,368	1	독일	8,322	9,534
2	스웨덴	6,826	7,036	2	스웨덴	7,382	8,303
3	독일	6,565	6,916	3	러시아	6,598	8,188
4	영국	4,304	4,373	4	네덜란드	3,262	3,627
5	미국	3,949	4,103	5	덴마크	2,660	2,700
6	네덜란드	3,170	3,149	6	영국	2,375	2,531
7	프랑스	2,187	2,240	7	중국	1,712	2,451
8	이탈리아	1,837	2,012	8	프랑스	2,191	2,144
9	중국	2,455	1,998	9	미국	1,677	2,043
24	한국	386	515	24	한국	108	323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입·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량(Flow)	3,732	7,919	3,296	4,648
	저량(Stock)	24,070	34,006	46,223	55,946
해외직접투자 (ODI)	유량(Flow)	8,371	7,622	-2,590	-1,028
	저량(Stock)	52,225	63,921	76,125	80,936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III. 정치 · 경제동향

1. 정치동향

■ 중도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스웨덴인민당으로 구성된 핀란드의 연립정부는 다음 총선일인 2007년 3월까지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비록 이번 연립정부 구성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정당인 중도당과 사회민주당 간의 불협화음이 지난 1월에 치른 핀란드 대통령 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으나¹⁾, 연립정부 구성은 다음 총선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핀란드 2003년 총선>

정당	획득(표)	비율	1999년 총선대비 득표수 % 변화율	의석수	
				2003년	1999년
중도당	689,391	24.7	2.3	55	48
사회민주당	683,223	24.5	1.6	53	51
보수당(국민연합)	517,904	18.6	-2.5	40	46
좌파연합	277,152	9.9	-1.0	19	20
녹색당	223,564	8.0	0.7	14	11
스웨덴인민당	128,824	4.6	-0.5	8	11
기독교민주당	148,987	5.3	1.2	7	10
진짜핀란드인당	43,816	1.6	0.6	3	1
무소속	13,572	0.5	.	1	1
전체	2,791,757	100	.	200	200

자료: Statistics Finland.

- 중도당과 사회민주당 간의 갈등과 제1야당인 보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 증가로 내년 2007년 총선은 이 세 정당들의 각축장이 될 것임.

1)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당의 대선후보인 마티 반하넨 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제2차 투표에서 사회민주당의 할로넨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제1야당인 보수당의 당수이자 현재 유럽 투자은행 부총재인 사울리 니니스토를 지지함. 2차 선거에서 할로넨 대통령은 51.8%를 득표하여 48.2%를 득표한 사울리 니니스토를 가까스로 이기고 핀란드 대통령으로 재선출 됨. 이후 중도당과 사회민주당은 대선에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의 농업 보조금 삭감문제에서도 견해차를 보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핀란드의 2003년 총선은 두 개 정당(중도당, 사회민주당)간의 선거로 볼 수 있음. 그러나 2003년 이후 중도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점차 보수당을 지지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총선 이후 주요 정당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됨.

■ 핀란드는 노동계를 비롯한 일부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예정임.

-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에 의한 핀란드의 유럽연합 재정분담금 증가, 2004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한 에스토니아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²⁾, 유럽 기구들에 대한 핀란드의 영향력 감소 등의 문제 때문에 핀란드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도 지속 유도를 해결과제로 가지고 있음.
- 더욱이, 핀란드는 2006년 하반기에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게 됨으로 의장국 역할 수행에 있어 유럽과 핀란드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임.

■ 핀란드의 대외정책 최우선 고려사항은 여전히 유럽연합이 아닌 국제연합(UN)임.

- 할로넨 대통령은 핀란드 대외정책의 주춧돌로서 핀란드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대통령 선거연설에서도 강조하였고 지금도 거듭 언급하고 있음.

2.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 2005년 핀란드는 펄프와 제지부문에 발생한 노동쟁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2004년 3.6%에서 2.1%로 낮아짐.

- 핀란드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펄프와 제지업계에 있었던 작년 상반기 파업의 영향으로 2005년 2분기의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로 저조함.
- 대외경제 부문에서 핀란드의 수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의 큰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폭이 2004년보다 줄어들었음.
- 최근 핀란드에서 투자회복 기미가 나타남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는 소비자 수요 증가와 생산능력 확장 압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2) 노동시장 개방은 2007년 이후로 예정돼 있음.

<2005년도 핀란드 국내총생산 분기별 추이>

	2004		2005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민간소비지출	2.9	3.2	1.9	3.9	4.9	2.8	3.4
공공지출	1.5	1.6	1.4	2.5	0.9	1.4	1.5
고정투자	4.5	5.0	0.0	0.2	4.3	2.1	1.7
재고	-0.5	0.3	1.5	-1.0	-0.9	1.2	0.2
국내 총수요	2.4	3.5	3.0	1.7	2.8	3.8	2.8
수출	9.9	5.6	7.4	7.5	8.9	4.7	7.0
수입	7.8	6.0	10.0	10.5	11.3	9.4	10.3
GDP	3.9	3.6	2.5	1.1	2.5	2.3	2.1

주: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변화율을 나타냄.

자료: Statistics Finland, Bulletin of Statistics.

- 2005년 핀란드의 고용은 세금인하와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용증가는 핀란드의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 비록 핀란드의 고용 증가율이 현재 낮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인하와 지속적인 실질임금의 상승은 핀란드의 소비증가 추세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고용 증가와 투자회복은 핀란드의 수입 증가율을 약 8%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됨.

핀란드 경제발전 개요

□ 1990년 이전

- 1860년부터 제재산업이 핀란드 산업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펄프산업과 제지산업이 발달해 옴.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대한 전후배상을 공산품으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핀란드의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됨.
- 1980년대에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유래없이 늘어남에 따라 핀란드의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게 됨.

□ 1990년 이후

- 1990년대 초 핀란드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구소련의 해체, 자본시장 규제 철폐로 인한 경기과열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됨.
- 1994년 실질이자율 하락, 전자산업과 삼림업에서의 수출증가로 경기회복이 시작됨.
- 핀란드 산업전체의 회복은 가계와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호전되는 시기인 1995년말에 이뤄짐.
-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핀란드의 실질국내총생산 평균증가율은 4.9% 임.
- 2001년과 2002년의 핀란드 경제는 전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침체로 인해 2001년과 2002년 실질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각각 1%, 2.2%로 큰 타격을 입음.
- 핀란드는 노키아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 산업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물가상승

- 2005년 핀란드의 물가상승률은 0.9%로 2004년보다 높아졌으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평균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은 편임.
 - 핀란드의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주요인은 통신요금과 의복가격 인하이며, 핀란드의 통신요금은 2006년 1분기에 11.4% 인하됨.
 - 2005년 4분기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1% 미만이었으나, 2006년 1분기에는 높은 오일 가격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1.4%로 증가함.
 - 오일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통요금 3.6% 인상, 난방비를 포함한 주거비 3.2% 인상, 교육비 2.8% 인상, 그리고 식당 및 호텔요금 2.4% 인상으로 인해 2006년 1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1.2%, 2월과 3월은 1.4%, 그리고 4월에는 1.5%를 기록함.
 -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요증가,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등이 물가를 압박하여 2006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1.5%, 2007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2%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 환율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유로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평가절상 되었으나, 2005년 미국의 금리인상 조치로 인해 유로화의 평가절상 추세는 주춤한 상태임.
 -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미국 금리인상이 한계에 다다른 2006년 중반까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됨.
 - 미국의 막대한 경상계정 적자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국공채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로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평가절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평균환율이 1 유로당 1.26 달러로, 2007년 평균환율이 1 유로당 1.35 달러로 유로화가 평가 절상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 달러화에 대한 구매력 상실이 더욱 커질 경우, 유로화의 평가절상은 더욱 크게 발생할 것임.

라. 대외교역

- 최근 상품교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역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5년 무역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50억 달러에 이르며 국내총생산의 2.6%를 차지함.
 - 2006년과 2007년에도 수입은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무역수지 흑자폭과 경상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오일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핀란드의 교역조건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마. 산업

- 2005년 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민간부문에서의 서비스 산업과 건설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핀란드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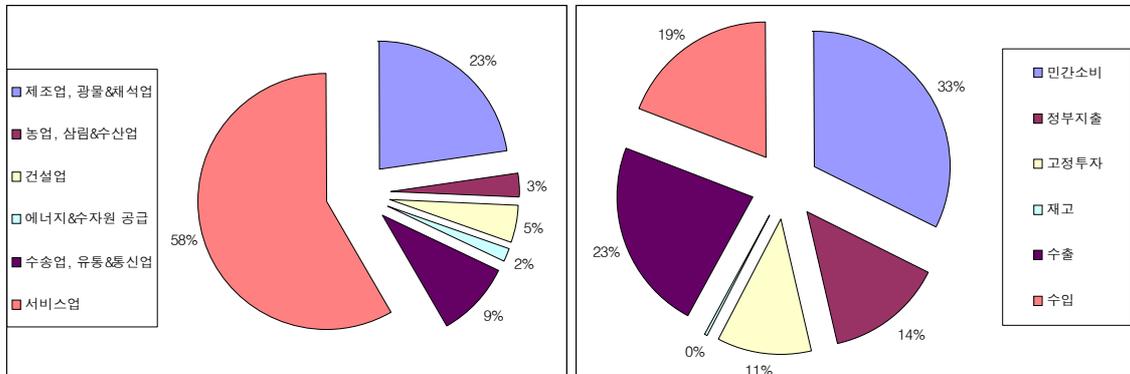
	2004 연간	200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2006 1분기	2분기
중간재	5.5	2.4	-16.0	-3.0	0.5	-4.2	-3.0	-4.0
자본재	8.0	2.6	6.6	3.4	1.2	3.4	10.6	15.6
소비생활용 내구재	3.0	19.3	-13.4	-16.3	-8.5	-14.3	-2.1	-4.4
소비생활용 비내구재	-1.7	-4.4	-0.8	-0.3	-1.1	-1.6	0.2	-1.4
제조업	5.5	1.7	-6.8	-1.2	0.3	-1.4	0.6	3.2
목재&제지 산업	5.7	2.0	-38.0	-4.6	2.3	-9.5	-2.1	-3.7
화학산업	3.8	6.2	2.1	-3.2	0.2	1.4	-2.9	-2.8
철강산업	7.3	1.1	2.8	0.7	0.5	1.3	6.2	9.9
전체 산업생산	5.0	0.5	-6.8	-2.1	-0.7	-2.4	1.3	3.5

자료: Statistics Finland, Bulletin of Statistics.

- 제조업 전체의 생산증가율은 펄프와 제지산업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미비한 상태임.
- 전기, 가스, 수자원을 공급하는 공공사업분야에서의 산업생산은 2005년 2사분기와 3사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05년 4분기 건설업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7%로 매우 높게 증가하였음.
 - 2005년 4분기에 소매 교역은 5.5% 증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산업생산은 4.9% 증가, 삼림업 산업생산은 5.4% 증가, 농업 산업생산은 9.5% 증가함. 이들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아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0.1% 포인트로 매우 작음.
 - 광물 및 채석업도 2004년 4분기에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하였으나, 이 증가치는 2분기와 3분기 증가치보다 작은 수치임.
 - 2005년 제조업의 연간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1.4% 하락함.
- 그러나, 2005년 4분기 건설업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7%로 매우 높게 증가하였음.
 - 2005년 4분기에 소매 교역은 5.5% 증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산업생산은 4.9% 증가, 삼림업 산업생산은 5.4% 증가, 농업 산업생산은 9.5% 증가함. 이들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아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0.1% 포인트로 매우 작음.
 - 광물 및 채석업도 2004년 4분기에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하였으나, 이 증

- 가치는 2분기와 3분기 증가치보다 작은 수치임.
- 2005년 제조업의 연간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1.4% 하락함.

<2004년도 핀란드의 국내총생산 구성>



자료: Statistics Finland, Bulletin of Statistics.

- 2006년 1월, 2월 핀란드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1.3%, 3.5% 증가하여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부문에서의 산업생산은 1월, 2월에 각각 전년 동기대비 0.6%, 3.2% 증가함.
 - 제조업 부문에서의 산업생산 증가는 자본재 부문과 철강산업의 산업생산 증가가 주원인이 되며, 자동차를 제외한 수송장비 생산이 2월에 전년 동기대비 50%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큰 특징임.
 - 모바일폰 산업을 포함한 통신장비 부문에서의 산업생산은 2월에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함.
 - 그러나, 면직과 섬유산업, 펄프와 제지산업, 그리고 고무와 플라스틱 산업에서의 산업생산은 급격히 감소함.

3. 경제발전 특징: 지식경제강국 핀란드

가. 세계일류 정보통신기술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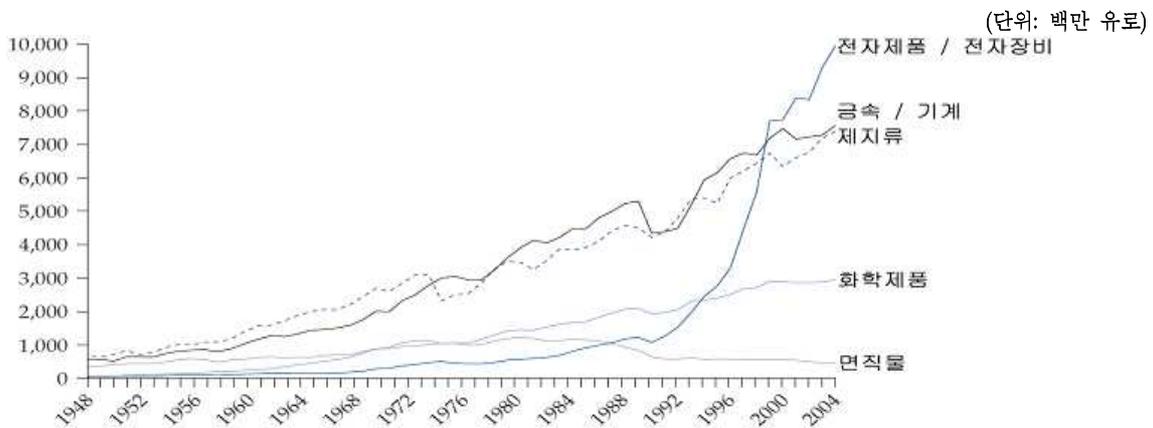
- 핀란드는 지하자원과 삼림으로 대표되는 자원집약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집약 산업으로 핵심 산업 전환에 성공하였음³⁾.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3년 연속 국가경쟁력 1위에 선정되는 등 세계최고의 정보통신기술

3) 1990년대 초 펄프 및 제지업에서 핀란드의 수출의 대부분이 이뤄졌음. 그러나 1998년에 전자산업이 전체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23.5%를 차지한 펄프 및 제지업의 수출을 추월하기 시작함. 2004년에는 통신을 포함한 전자산업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4.7%를 기록하였고, 펄프 및 제지업은 19.4%를 기록함.

국으로 발전4)

- 핀란드의 경제구조 전환은 불과 10여년 사이에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아일랜드와는 달리 자국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하여 의의가 큼.
 - o 아일랜드 첨단산업의 90%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핀란드의 첨단산업은 10%만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핀란드의 첨단산업은 1980년대에 전체 수출의 5%로 비중이 낮았으나, 2004년에 20%로 높아져 무역수지 흑자에 큰 기여. 특히,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은 침체된 핀란드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핵심 원동력이 되었으며, 1980년에 GDP 대비 1%에서 2000년에 8.8%로 핀란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짐.

<핀란드의 품목별 산업생산량 추이>



출처: Statistics Finland.

나. 핵심 산업 성공전환의 원동력: 교육, R&D

■ 핀란드는 세계 최고의 학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OECD가 2000년과 2003년에 주관·실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중 교육 분야에서 연속 1위를 고수하는 등 교육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핀란드 교육과정은 다양성과 맞춤형 교육, 유연성을 특징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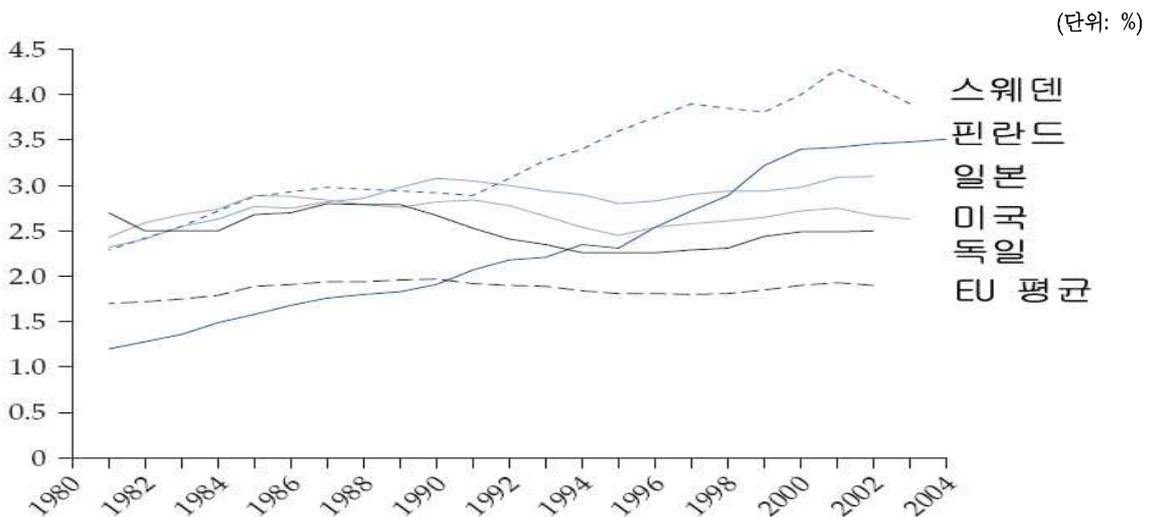
- 핀란드의 기초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핀란드

- 4) 1990년대 초기, 핀란드는 금융시장 규제철폐와 개방으로 인한 막대한 외국자본 유입으로 경기 과열이 발생하였고, 5개의 은행과 5개의 소규모 금융기관이 파산상태를 맞아 3개의 은행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낮아진 세수입과 높아진 실업 및 복지비용 증가로 인해 정부재정이 악화되었으며, 구소련 몰락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구상무역 붕괴로 전체 수출의 15%가 감소하는 등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실질 GDP가 10%이상 하락하고, 1994년 전체 실업률이 19.8%에 이르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됨.

- 는 19세기 초부터 고수해온 평준화 교육을 지금까지 기본 교육방침으로 유지해 왔음.
- 그러나, 고등교육에서의 교육제도는 핀란드의 경제 상태나 특정기술에 대한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됨.
 - 1993년에서 1998년까지, 핀란드의 IT 관련 대학 교육과정은 2배, 전문대 과정에서는 3배 증가하였음. 또한, 핀란드 아카데미는 1997년 핀란드 국내 최우수 연구기관 26개소를 선정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에 걸쳐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1990년 중반이후 핀란드의 연구원 수는 세계에 유래 없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전체 근로자중 차지하는 연구원 비중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핀란드의 R&D는 1980년부터 정부의 R&D 투자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투자금액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2004년 전체 R&D 투자액은 GDP 대비 3.5% 임⁵⁾.

<GDP대비 R&D 투자액>



출처: OECD 2005.

- 1990년대 초 경기침체시기에 핀란드는 산·관·학 간의 협의를 통한 과감한 R&D 투자정책을 실시하였고, 벤처캐피털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자본을 핀란드의 R&D 투자금으로 유치하였음.
 - 헬싱키, 오울루, 팀페레 등에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사이언스 파크를 집중 육성하여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함.
 - 핀란드는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정보화 사회를 설정하고, 정부 R&D 예산의 50% 이상을 정보통신 클러스터에 집중하는 등 정보통신 산업을 적극 육성함.

5) 1970년대 말의 핀란드 R&D 투자는 OECD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였으나 지금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임. 2004년 핀란드의 GDP 대비 R&D 투자액은 EU 회원국들 평균인 2%를 훨씬 상회하며, 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이스라엘과 스웨덴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IV. 한국과의 경제관계

1. 교역관계

■ 교역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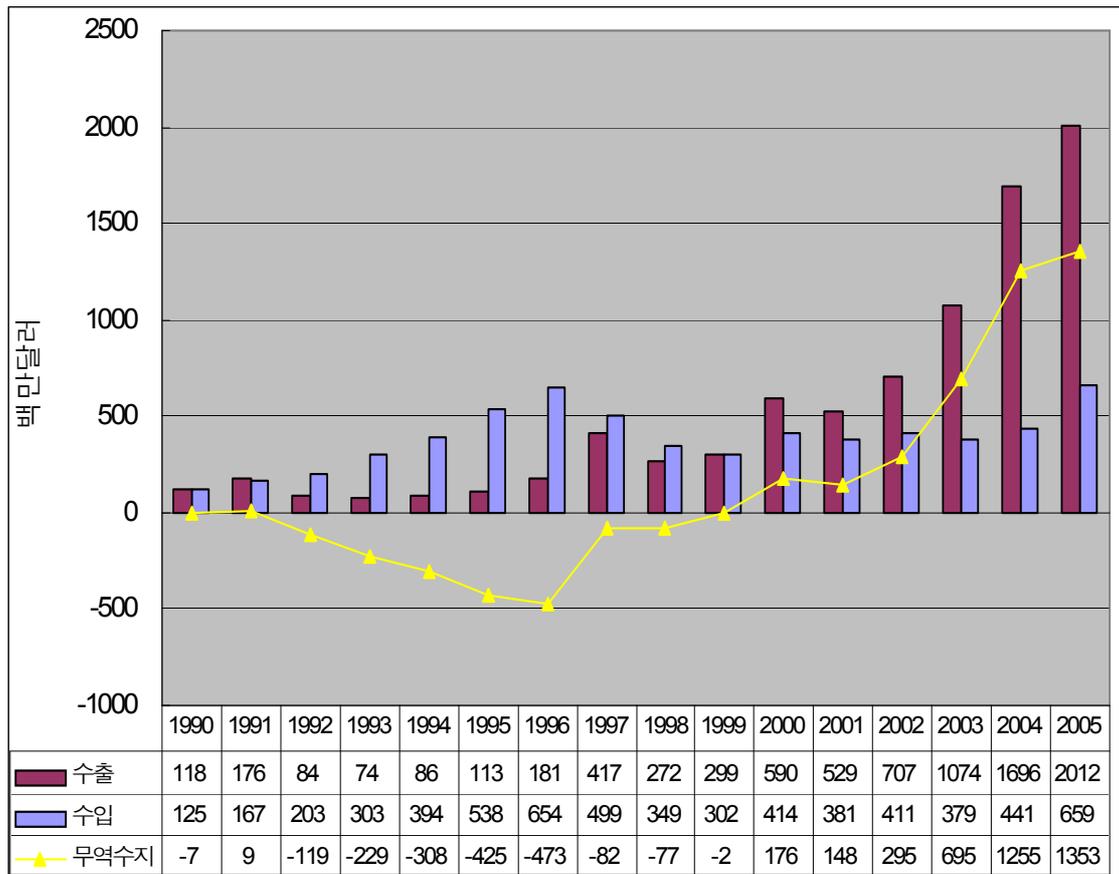
- 2005년 기준으로 핀란드는 한국의 28번째 수출국으로 對핀란드 수출은 한국 총수출의 0.71%를 차지하고 핀란드 총수입의 3.41%에 달함⁶⁾.
- 핀란드는 한국의 38번째 수입국으로 對핀란드 수입은 한국 총수입의 0.25%, 핀란드 총수출의 0.99%에 달함.

■ 한국의 對핀란드 교역은 직접적인 교역보다는 러시아나 CIS국가들에 대한 우회수출이 대부분이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 직접교역이 주류를 이루어 옴.

- 한국과 핀란드의 교역은 1990년 2억 4,300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9억 1,6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한국이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교역량도 줄어들었음.
 - 특히,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러시아 및 CIS국가에 대한 우회수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역량은 더욱 감소하게 되어 1999년에는 총교역량이 6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1998년 이후 러시아 및 CIS국가를 제외한 핀란드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 1998년 핀란드에 대한 전체 2억 7,200만 달러의 수출 중 2억 달러가 핀란드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로 전년대비 50%의 증가를 보였으며, 1999년에도 총 2억 9,900만 달러의 수출 중 2억 9천만 달러가 순수 핀란드에 대한 수출로 직접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핀란드는 1999년 하반기 유럽연합 의장국 기간 동안 한국과 유럽연합간 발생한 조선보조금 문제, 자동차 관련 교역불균형 문제 등 통상마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핀란드와 한국과의 직접적인 통상마찰은 없는 상황임.

6) 2005년도 한국의 총 수출액은 약 2,844억 달러, 총 수입액은 약 2,612억 달러이고, 핀란드의 총 수입액은 약 589억 달러, 총 수출액은 약 659억 달러임.

<한국의 對핀란드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 한국의 對핀란드 무역수지는 1990년대에는 1991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1996년 이후 한국의 對핀란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어 2000년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해 오고 있음.

- 對핀란드 무역수지는 2005년에 13억 5,31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최근 5년동안 8배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 증가를 보이고 있음.
- 對핀란드 수출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05년에는 20억 1,189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함. 최근 5년동안 수출은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 對핀란드 수입은 1997년부터 점차 감소하였다가 2005년에 6억 5,879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임.

< 2005년도 한·핀란드 업종별 수출입 내역 >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무선통신기기	1,103.8(54.8)	철강판	211.7(32.1)
가정용회전기기	230.8(11.4)	합금철선철 및 고철	71.5(10.8)
영상기기	200.4 (9.9)	종이제품	41.4 (6.2)
자동차	122.3 (6.0)	제지인쇄기계	41.2 (6.2)
컴퓨터	97.7 (4.8)	목재류	29.4 (4.4)

주: MTI 3단위 기준, ()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 품목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對핀란드 수출은 무선통신기기에, 수입은 철강판에 편중되어 있음.

- 2005년 우리나라의 對핀란드 수출은 무선통신기기(MTI 품목코드 812)가 54.8%, 가정용회전기기(同 824)가 11.4%, 영상기기(同 821)가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자동차(同 741)와 컴퓨터(同 813)가 각각 6.0%, 4.8%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핀란드 수출의 54.8%를 차지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는 2001년에 51.3% 수출 감소를 겪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3년부터 최대 수출품목이 되었으며 2003년, 2004년에 각각 117.9%, 237.6% 수출증가를 기록함.
- 2005년 우리나라의 對핀란드 수입은 철강판(MTI 품목코드 613)이 32.1%, 합금철선철 및 고철(同 618)이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종이제품(同 252)과 제지인쇄기계(同 727)가 각각 6.2%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핀란드 수입의 32.1%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판은 2003년에 1,310만 달러 수입액을 기록하면서 對핀란드 10대 수입품목으로 진입하였고, 이후 2004년에는 400% 수입증가를 기록하여 對핀란드 2대 수입품목으로 급상승하였음. 2005년에도 철강판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223.2% 수입증가를 기록함.

< 2006년 1월-6월 10대 수출입 품목 교역현황 >

대한민국 수출				대한민국 수입			
품목 코드 ¹⁾	품목	금액 (천 달러)	증가율 (%) ²⁾	품목 코드 ¹⁾	품목	금액 (천 달러)	증가율 (%) ²⁾
총수출		950,943	-3.2	총수입		251,806	-31.8
812	무선통신기기	459,546	-18.2	613	철강판	36,552	-75.4
741	자동차	199,643	246.1	252	종이제품	21,541	-10.5
824	가정용회전기기	80,641	-34.9	031	목재류	21,416	64.4
821	영상기기	46,550	-45.2	815	계측제어분석기	21,031	148.7
813	컴퓨터	36,543	-9.3	746	선박해양구조물및 부품	18,157	156.9
823	냉장고	10,188	-39.3	228	정밀화학원료	10,408	-11.5
742	자동차부품	9,161	600.1	812	무선통신기기	9,031	7.1
310	플라스틱 제품	8,969	15.6	842	정전기기	8,344	89.9
320	고무제품	7,571	16.5	725	건설광산기계	8,266	374.8
811	유선통신기기	7,353	34.6	814	전자용용기기	7,625	18.7

주: 1) MTI 3단위,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 금년 상반기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은 주력제품인 무선통신기기와 철강판의 전년 동기대비 수·출입 증가율 감소로 인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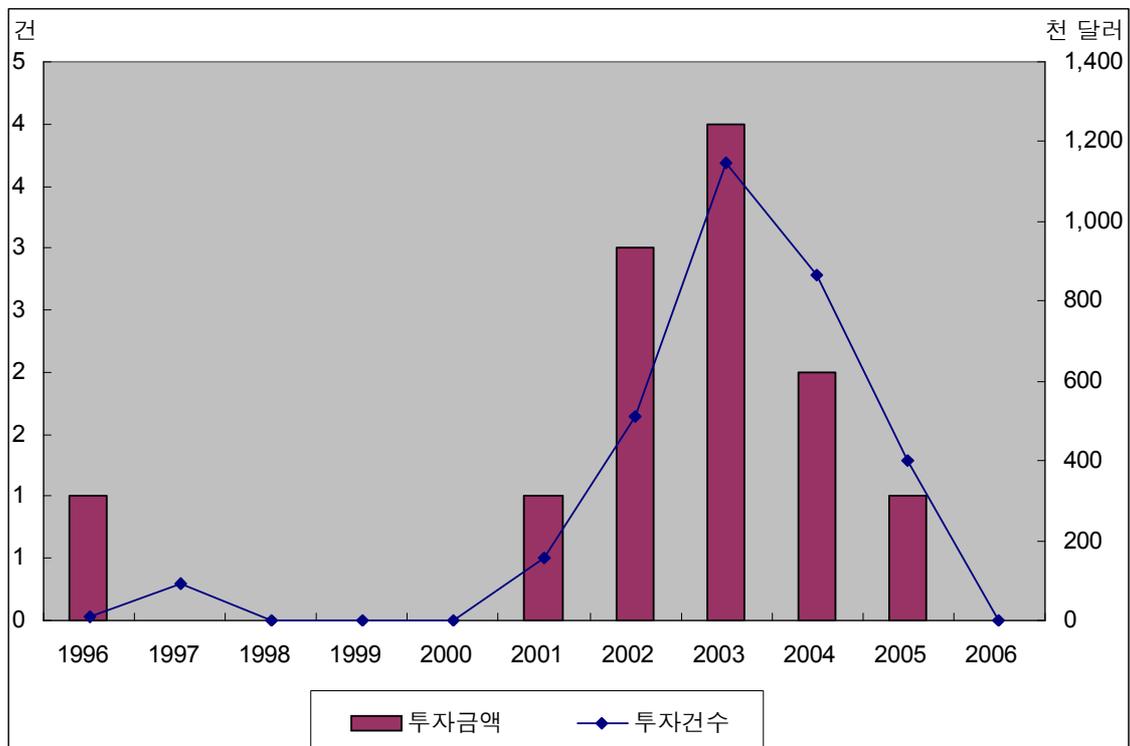
- 금년 상반기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 증가율이 각각 246.1%, 600.1%인 것이 특징임. 자동차는 금년 상반기 전체 수출품에서 가정용회전기기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87.3%, -89.2%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1년에 2,899.5%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부터 자동차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수입품에서는 최대 수입품인 철강판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75.4%로 감소하였고, 계측제어분석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그리고 건설광산기계의 전년 동기대비 수입증가율이 각각 148.7%, 156.9%, 374.8%로 높게 나타난 것이 큰 특징임.
 - 건설광산기계는 1997년 한국의 대한민국 10대 수입품목 중 9위를 차지한 이후 9년 만에 10대 수입품으로 회복함.

■ 2000년 이후, 한국의 대한민국 주요 수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가정용회전기기, 자동차이며, 이 품목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임.

- 對핀란드 주요 수입 품목으로 철강관, 종이제품, 목재류 등을 꼽을 수 있음.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對핀란드 최대 수입품이었던 합금철선 및 고철의 수입이 금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93.2%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對핀란드 전체 수입품목 중 22위로 추락함.

2. 투자관계

<한국기업의 對핀란드 연도별 투자 추이>



주: 2006년 6월까지 신고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005년말 핀란드는 우리나라의 121대 투자국이며⁷⁾, 2006년 6월말까지 對핀란드 투자 건수 및 규모는 신고기준으로 총 12건에 318만 달러, 투자기준으로 총 10건에 210만 달러임.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투자액이 15만 8천 달러에서 114만 9천 달러로 6배 이상 성장했으나, 2004년 이후 투자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임.
- 2005년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한 투자 1건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한국의 對핀란드 투자는 2006년 6월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음.

7) 2005년 우리나라의 신고액 기준 외국인투자 총액은 약 953억 달러이며, 이 중 핀란드에 대한 신고액 기준 투자는 318만 달러임.

- 한국의 對핀란드 투자는 핀란드가 가지고 있는 투자매력도가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비해 적어 매우 저조한 편임.
 - 핀란드는 인구 523만명 정도로 자체시장 규모도 협소하고, 고임금 등으로 인해 생산비용도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비해 높아 한국의 현지 투자대상국으로서는 투자매력도가 떨어짐.
 -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도 핀란드의 첨단기술력과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핀란드보다는 러시아나 CIS국가 진출을 목적으로 핀란드에 투자하고 있음.

<업종별 對핀란드 투자 내역>

(단위 : 천 달러)

업종	총 신고		총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업	0	0	0	0
수산업	0	0	0	0
제조업	5	1,817	5	1,123
건설업	0	0	0	0
운수업	0	0	0	0
도소매업	3	603	2	469
통신업	1	105	0	0
숙박음식업	1	400	1	249
부동산업	0	0	0	0
서비스업	2	263	2	263
합계	12	3,188	10	2,104

주: 2006년 6월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12개에 이르는 핀란드 내 설립법인 가운데 제조업이 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의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도소매업 3건, 통신업 1건, 숙박음식업 1건, 서비스업 2건으로 구성됨.
 - 투자금액 면에서도 제조업은 신고기준으로 전체 투자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이 각각 전체 투자액의 18.9%, 12.5%, 8.2%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기업의 對핀란드 직접투자 현지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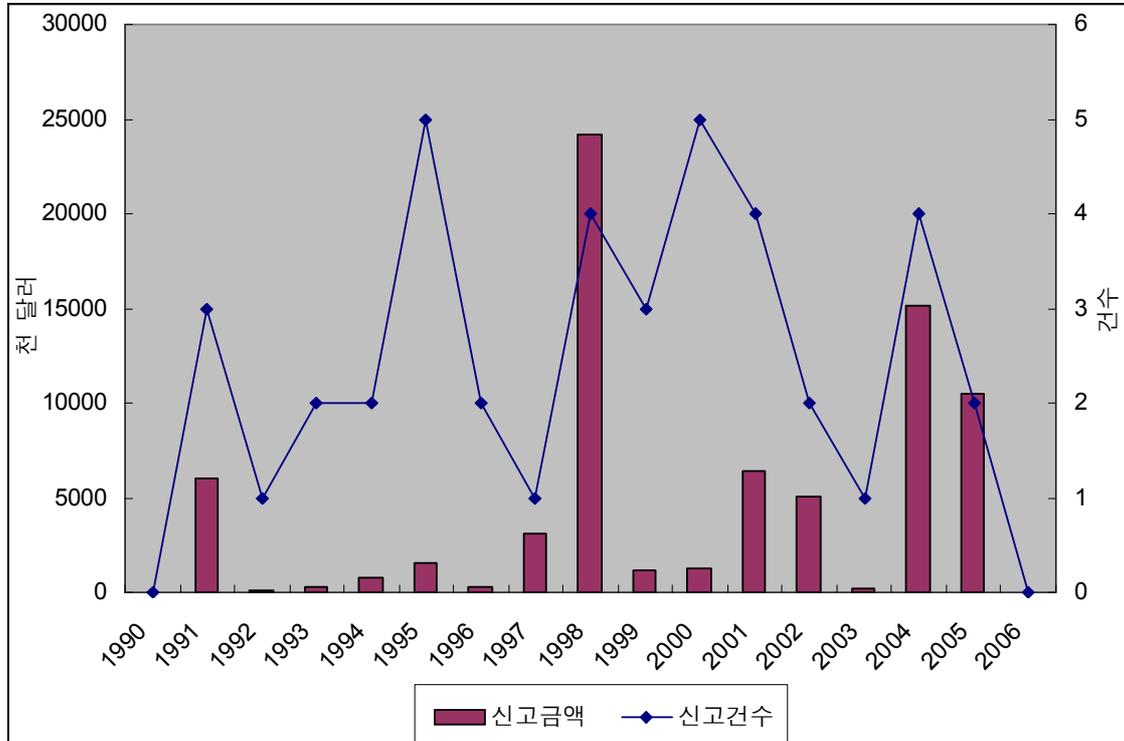
(단위 : 천 달러)

	현지법인명	상호	주요취급품목	신고일자	비율	신고 금액	투자 금액
제조업	EAST VALLEY FIBER CORP.	김포카바링	화학사, 카바링사	2002-10-15	100.00	200	100
	AJAT, LTD.	삼일제약(주)	치과용 X-RAY SENSOR	2004-12-30	12.90	817	681
	JUNE SPRAYER INC.	성대산업	프라스틱	2003-07-08	100.00	500	52
	YOUNG SIN TRONICS	전건석	컴퓨터 디스플레이	2004-03-09	100.00	50	50
	ROYAL CLASSIC TOBBCCO CORPORATION	최상철	담배	2003-12-17	100.00	250	240
제조업 소계(5건)						1,817	1,123
도소매업	SPG EUROPE OY CO., LTD.	(주)에스피지	소형전기모터	2002-02-08	100.00	9	-
	JEONG EUI KYUN	정의균	자동차부품	2002-04-18	100.00	294	294
	CHEVROLET FINLAND OY	지엠대우오토 엔테크놀로지 (주)	자동차판매	2003-10-28	100.00	294	294
도소매업(3건)						603	469
통신업	GLOBALSTAR FINLAND OY.	(주)하이닉스 반도체	위성통신서비 스	1996-03-20	49.00	95	-
	GLOBALSTAR FINLAND OY.	현대종합상사 (주)	위성통신서비 스	1996-03-20	49.00	10	-
통신업(2건)						105	-
서비스업	INDICOM INC.	김정훈	정보기술	2003-05-30	100.00	105	105
	PROHA PLC	소프트웨어테 크놀로지컨설 팅(주)	소프트웨어	2001-01-11	100.00	158	158
	MOO GUNG HWA KY	최문기	식당	2005-05-10	100.00	158	158
서비스업(3건)						421	421

주: 2005년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1990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핀란드의 對한국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총 41건에 7,600만 달러로서 우리나라의 對핀란드 총 투자액의 약 23배임.

<핀란드의 對한국 연도별 투자 추이>



주: 2006년 6월까지 신고기준.
자료: 산자부.

- 핀란드의 對한국 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만 이뤄져 왔음.
 - 신고기준으로 제조업은 총 27건에 7,449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총 14건에 149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2%를 차지하고 있음.
- 2005년말 기준으로 핀란드의 47개 업체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업체로는 Nokia(2,200만 달러 투자), Ahlstorm(1,000만 달러), Kemira(1,900만 달러), Metso Paper(500만 달러)가 있음.

3. 전망

가. 주변국 진출을 위한 핀란드의 전략적 거점역할 강화 필요

- 우리나라 기업들은 핀란드의 우수한 비즈니스 인프라와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러시아, 발트 3국, 중부유럽 등 핀란드의 주변국 진출을 적극 시도해야 할 것임.

- 핀란드는 러시아 및 발트3국과 전통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나라들이 이들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핀란드를 교두보로 삼고 있음.
 - 핀란드는 우수한 인적자본, 산학연계 R&D를 통한 첨단기술, 투명한 행정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비즈니스 투자환경 평가에서 매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
 - 러시아와 핀란드의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최근 3년동안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5년 핀란드의 주요수출국 순위에서 러시아는 독일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함.
 - 발트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오일머니 유입으로 소득이 높아진 러시아와 함께 핀란드의 지정학적 중요도를 더욱 높이고 있음.
 - 특히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WEF 국가경쟁력이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보다도 앞선 것으로 나타남⁸⁾.
 - 핀란드는 매년 에스토니아의 주요 수출입국 순위에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에스토니아 수출의 26.7%를 차지하였고 수입은 19.7%를 차지함.

<발트 3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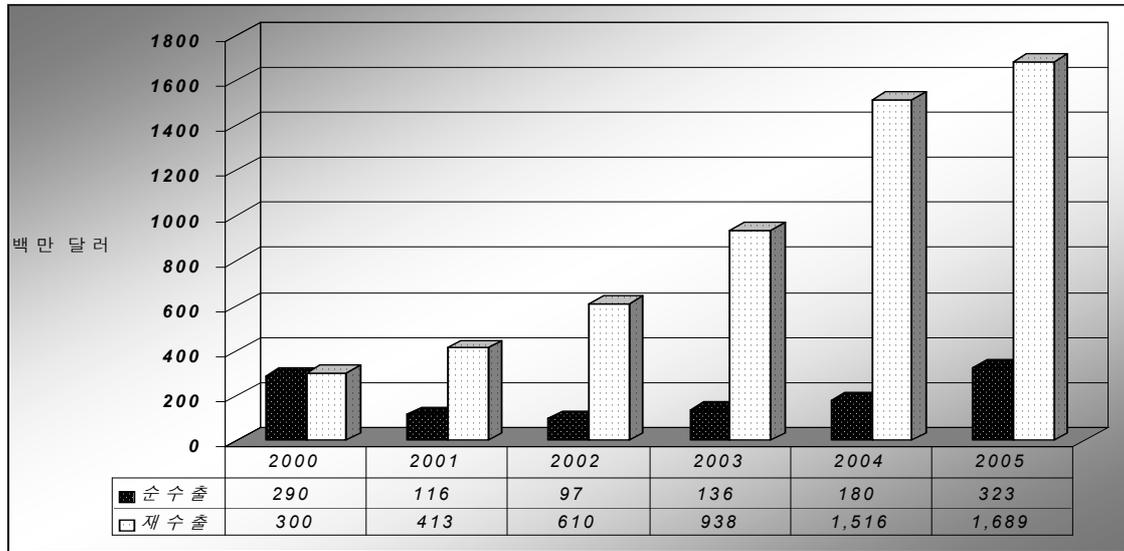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에스토니아	실질GDP 성장률 (%)	6.5	7.2	6.7	7.8	9.8
	수입액 (백만 달러)	4,148	4,619	6,161	7,937	9,657
라트비아	실질GDP 성장률 (%)	8.0	6.5	7.2	8.6	10.2
	수입액 (백만 달러)	3,578	4,024	5,174	7,002	8,272
리투아니아	실질GDP 성장률 (%)	6.4	6.8	10.5	7.0	7.5
	수입액 (백만 달러)	5,997	7,343	9,362	11,689	14,634

자료: EIU 2006. CountryProfile: Estonia, Latvia, Lithuania.

- 우리나라의 핀란드 경유 재수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최근에는 핀란드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보다 핀란드 경유를 목적으로 한 수출이 더 커져 핀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8) 에스토니아는 2002년에 세계 최초로 전 국민에게 전자신분증을 발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지방선거 투표를 실시하는 등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 중 단기간에 시장경제 체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한 나라임. 에스토니아의 2005년도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4년도 순위를 그대로 유지한 20위를 기록함.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4년에 29위, 2005년에 17위를 기록함.

<한국의 對핀란드 수출구조>



주: 재수출은 우리나라의 對핀란드 수출중 주변국으로 재수출된 경우를 뜻함.

재수출액 = 우리나라가 집계한 對핀란드 수출액 - 핀란드가 집계한 對한국 수입액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 핀란드를 경유한 재수출은 2000년부터 순수출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2005년까지 6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o 재수출 증가는 주변국들의 빠른 경제성장, 무역제한 완화조치, 그리고 발트 3국의 2004년 EU가입 등에서 기인하며, 핀란드 순수출 증가세가 불규칙 한 데 비해 재수출 증가세는 꾸준히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임.
- 철의 실크로드인 남북철도가 개통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통해 핀란드와 주변국들을 비롯해 서유럽 국가들에게 보다 많은 양을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임.
 - o 이미 우리나라 가전회사들은 수출품을 극동 아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을 이용하여 러시아 국경지역의 핀란드 보세창고로 운송하고 있음.
 - o 남북철도를 경유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수송기간이 약 10일인 현재의 수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항만시설이 부족한 발트해 연안국가들 통한 기존의 서유럽 상품수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o 러시아 철도공사는 'Transcontainer'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물동량의 유치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o 핀란드 국영철도공사(VR)는 남북철도가 여러 가지 수송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용에 따른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우리나라와 협상을 원하고 있음.

나. 핀란드와의 다각적인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무역장벽이나 투자제한이 없는 시장 개방국이나, 핀란드와 한국의 협력관계는 아직 활발하진 않음.

- 핀란드의 경제발전 원동력인 교육과 R&D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할 분야이며, 교육과 R&D를 통한 핀란드의 강소국 발전전략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좋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핀란드는 각 지역별로 식품, 임업, 기초금속, 기계생산,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기업 활동 서비스, 복지부문 등 총 9개 분야의 산업클러스터를 분산하여 육성하였고, 산업클러스터에서 진행되는 R&D는 산·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음.
 - 노키아로 대표되는 핀란드의 이동통신 산업은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기술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더딘 상태이며, 반하넨 핀란드 수상은 우리나라의 고급 이동통신 기술이 핀란드보다 앞선 상태라고 인정한 바 있음.
- 핀란드와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양국간 민·관이 참여하는 정보통신 전문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양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핀란드와의 성공적인 정보통신기술 협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력을 세계에 더욱 각인시킴과 동시에 핀란드 주변국들로부터 정보통신 협력을 이끌어 낼 원동력이 될 수 있음.